조호이산, 내 삶을 유인하라

(잠언 9:1~18)

1.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조호이산, 내 삶을 유인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조호이산, 내 삶을 유인하라'
'조호이산(調虎離山)'은 중국의 고대병법인 삼십육계 가운데 열다섯 번째 계책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호랑이를 유인하여 산을 떠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험악한 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야수로써의 속성과 강인한 힘은 산악의 험한 지형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호랑이를 유인해서 들판으로 나오게 하면 아주 쉽게 포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들에 있는 호랑이는 개도 우습게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호랑이의 속성은 산악지대에서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그 강인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호랑이를 산에서 들판으로 유인하듯이, 적으로 하여금 유리한 곳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힘을 약화시키고 허점을 드러내게 한 후에 공격하여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적을 곤란하게 만들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적을 유인하여 그 행로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조건이 적에게 유리할 때에는 자연의 순행하는 원리에 따라 조건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적이 불리한 곳으로 나오게끔 유인하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적이 유리할 때에 싸우는 것은 하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호랑이 사냥"이라는 구호 아래에 부패척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쟁쟁한 고위 관료들이 연일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데 그 모습을 호랑이 사냥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총괄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서 부패한 자

들을 잡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부패에 의심되는 관료를 새 근무지로 영전시킵니다. 그리고 아직 새 임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돌연히 부정부패의 혐의를 씌워서 낙마하게 하고 체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 탄탄한 권력 기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자신의 기반을 총 동원해서 방어에 나섭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영전을 시키면 오히려 영향력은 축소됩니다. 그럴 때에 혐의를 드러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호이산의 계책으로 부패를 척결하는 호랑이 사냥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조호이산의 책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의인화하였습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어리석음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1~5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지혜로 돌아오면 삶은 일곱 기둥을 가진 집처럼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이 기둥을 일곱 개나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한 저택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집에서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하였습니다. 즉 빠진 것이 하나도 없는 큰 잔치를 벌이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어리석음을 떠나 지혜로 돌아오면 이렇게 웅장하고 완벽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갖춘 큰 잔치를 베풀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전제해야 할 것은 4절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의 뜻이 조호이산의 제목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 '패티'라는 단어로 '파타흐'라는 말에서 파생된 '열려져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려져 있다'라는 말은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과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고 있는 상태를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대상들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나 자녀일수도 있고 재물이나 건강 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육체의 오감으로 접한 후에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는 판단이 작용하고, 객관적 사실은 나의 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주관적 현실이 됩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길을 걸을 때에 가로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를 생각하며 가로수 길을 걷는 동안에는 가로수들이 있다는 사실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대신 돈 문제라는 사실을 안 좋다고 여기는 순간 마음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육체의 오감으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와 과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현실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산에서 호랑이와 싸우는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먹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돈 문제로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끙끙댑니다. 아무도 돈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산에 호랑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현실로 삼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육체의 오감으로 받아들인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판단함으로써 세상에 대해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은 산에 호랑이가 됩니다. 건강이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오감으로 만나면서 마음에 받아들여 현실로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하반부를 보면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라고 했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사르 레브'라고 하는데 '마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헤사르는 '결핍되었다'라는 뜻이고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였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곧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들에 마음을 주지 않고 현실로 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십자가라는 사실에 대해 마음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직 교회에 왔을 때에만 그것도 일 년에 몇 번만 십자가를 기억하고 마음을 기울여볼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로써 세상을 지으셨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이 모두 이 세상에 가있습니다. 육체의 오감을 통해 만나는 것들에 온 마음이 향해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6절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조호이산의 계책을 따르라는 권고입니다. 어리석음은 마음을 열어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판단하고 들여놓으면 사실은 현실이 됩니다. 험악한 산에 호랑이와 맞서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버리고 산 아래로 호랑이를 유인해야 합니다.
부부문제 가족문제 건강문제 직장문제 재정문제 등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산에 호랑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체 어느 한 가지도 마음대로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겠다며 산에서 호랑이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유인해 와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적 고백이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현실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묵히고 썩혀서는 안 됩니다. 망각의 그늘 속에 가두지 말고 현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현실로 삼고 돈 문제를 유인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에 아버지를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돈 문제가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현실이 되신 상황에서 돈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으면 나와 연관된 문제들은 자연히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여기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그 현실로 들어가면 나에게 연결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앞으로 유인되어 끌려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은 채로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안 좋아도 살 수 있고, 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고 하나님을 가질 수 없다면 못 산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현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를 현실로 삼은 채 하나님을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 돈 없으면 못살아요. 돈 없으면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유일한 대상인 돈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현실로 삼은 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건강

이 나의 기쁨과 만족의 근거이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나의 현실이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늘에 묻히고 창고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경외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나의 현실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현실로 삼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게 돈 문제가 있다면 그 돈 문제에 대한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돈이 벌린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미련한 여인이 사람들을 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미련한 여인은 음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음녀에게 속아서 세상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번제단에서 어린양을 죽이는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이처럼 세상에 대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제는 호랑이 같은 세상의 문제들을 현실로 인정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세상에 마음을 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창고에 갇히고 맙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지혜 없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한 헝그리 정신을 죽여야 합니다. 헝그리 정신은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세상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 헝그리 정신 곧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기쁨과 만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가 이루어지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현실에서 돈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건강문제도 내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일류대학 진학 여부가 내 인생에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버지라도 걱정이 없을 텐데 심지어 창조주가 내 아버지이신데 어떨지를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교리로만 이해하려 하고 실제 삶은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실들만 현실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음녀는 우리를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꾀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세상 것을 얻는 방편으로 동원시키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된 음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헝그리 정신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스스로 산에 있는 호랑이와 맞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을 얻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헝그리 정신과 판단에 대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지켜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오감으로 만나는 세상에 대해서 과녁에 총을 쏘듯이 판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어리석고 지혜 없을 때에는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판단하며 마음에 받아들여 현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돌아온 자들은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죽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육체의 오감으로 만나는 사실들이 현실로 들어오지 못한 채 바깥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공백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바깥에 있는 사실들에 발사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에서 내보냄으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배우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배우자에 대한 판단을 죽이면 내 마음은 지켜지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통해 발사됩니다.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발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밝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조호이산은 호랑이를 유인하여 산을 떠나게 하는 계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현실인 곳으로 세상 문제를 끌고 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에 내 몸과 관계의 사슬에 묶인 세상의 문제들은 창조주이시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유인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 경외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신 현실 안에서 육체와 연관을 맺은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유인됨으로써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잔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